

TV 1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6-12 showing program schedules for various channels.

'사생팬' 논란...팬인가, 스토커인가

스타와의 친밀도 과시 속 인증샷 문화 생기면서 더욱 심화

팬인가, 스토커인가.

최근 그룹 JYJ(샤진)의 '사생(私生)팬(私生팬까지 쫓는 극성팬)' 폭행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른바 '사생팬'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스타들에게 팬이란 없어서는 안 될 '불가분의 존재'다. 반면, 스타를 향한 팬의 관심이 '애정' 수준을 넘어 집착으로 번질 경우 팬은 스타의 가장 강력한 '적'이 되기도 한다.

그룹 JYJ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사생팬들의 행동은 대중의 상식을 뛰어넘는다.

JYJ 멤버 김준수는 "(사생팬들이) 우리의 신분증을 이용해 통화 내용을 노획했고 자동차에 위치 추적 GPS를 몰래 장착해 쫓아다녔다. 또 빈번히 무단 침입해 개인 물건을 촬영하고 심지어는 자고 있는 내게 다가와 키스를 시도했다"고 털어놨다.

박유천도 "대위 이후 감사하게도 대중에게 과분한 사랑을 받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8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사생팬들에게 고통받았다"며 그간의 마음고생을 토로했다.

그림 동방신기의 최강찬도 지난해 "장난 전화가 많이 와 전화번호를 바꿨더니 5분 만에 '번호 바꿨네요'라는 문자가 왔다"는 '섬뜩한' 일화를 공개하기도 했다.

또 그룹 소녀시대의 태연은 지난해 한 행



시장에서 공연을 하던 도중 무대로 난입한 남성 관객에게 끌려갈 뻔하다. 경찰원에 의해 가까스로 구출됐으며, 가수 휘성도 공개 방송 출연 도중 술 취한 관객에게 습격을 당했다.

전문가들은 '사생팬'이 등장한 이유를 경쟁 사회 속에서 돋보이고 싶은 개인의 심리, 사생활 침해에 관한 한국 사회 특유의 문화 등에서 찾는다.

서울대 심리학과 과금주 교수는 "'사생팬'들의 행동은 스스로를 드러내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며 "나는 스타와 이 정도로 친하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에 점점 과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스)의 발달과 함께 이른바 '인증샷 문화'가 생기면서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해졌다"고 덧붙였다.

대중문화평론가 정덕현 씨는 "사생활 침해에 상대적으로 관대한 한국 사회 특유의 문화도 문제"라며 "특히 연예인의 경우에는 '공인'이라는 명목 아래 사생활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과금주 교수는 "사생활 문제는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다"면서 팬들의 주류를 이루는 청소년들의 문화적인 욕구를 채워줄 다양한 기회들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14일(음 2월 22일 甲戌)

- 36년생 친분을 돈독히 하라. 48년생 불가피하다면 적극적이야 한다. 60년생 정정당당하게 대하는 것이 좋다. 72년생 계획이 필요하다. 84년생 힘들어 하는 이웃을 외면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행운의 숫자 : 80, 50
37년생 많다고 반드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 49년생 하노라면 극복될 수도 있다. 61년생 큰 화의 불씨가 보인다. 73년생 함께하는 일에 빠져서는 절대 안 되느니라. 85년생 안정 계도로 진입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02, 75
38년생 감당 못할 일은 떠맡지를 말라. 50년생 보이지 않는 이편까지 가정하고 있어야 한다. 62년생 후회만 하지 말고 대안을 마련해야 하느니라. 74년생 측근 때문에 함께 크게 망신당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57, 43
39년생 힘들다고 정도를 벗어나면 아니 되느니라. 51년생 집단 활동을 본격적으로 진행해도 좋다. 63년생 과식은 질병을 유발하기도 하느니라. 75년생 장애물은 치우고 가는 편이 낫다. 행운의 숫자 : 60, 84
40년생 최종적으로 선택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52년생 옛사람의 의중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64년생 원인을 잘 따져보면 대책이 선다. 76년생 화려함을 쫓는 습관은 사치에 빠지게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21, 35
41년생 핑계 대려 하지 말고 솔직히 고백하자. 53년생 공금을 참을 줄도 아는 제어도 필요 하느니라. 65년생 한 발 짝 물러서서 추이를 지켜보라. 77년생 과거의 경험을 되살리면 매우 쉬우니라. 행운의 숫자 : 70, 26

- 42년생 정신적 사치에 빠져서는 안된다. 54년생 결과 속이 전혀 다를 수 있느니라. 66년생 평소 애의 연력이 없던 이로부터 간절한 만남의 제안이 있다. 78년생 비어 있는 부분을 채워줘야 한다. 행운의 숫자 : 92, 20
43년생 과거의 업적이 평가되면서 대우를 받게 된다. 55년생 구실만을 찾으며 한다면 비겁하다는 소리를 듣는다. 67년생 할로가 트이는 계기가 조성될 수 있다. 79년생 국면을 타개해 놓고 봐야 한다. 행운의 숫자 : 47, 30
44년생 일가 친척이 모여서 큰 행사를 치르게 되리라. 56년생 언행만 보더라도 짐작이 갈 것이다. 68년생 어찌할 도리가 없으니 처치에 순응해야겠다. 80년생 주관적으로 고집을 부리는 발언은 삼가라. 행운의 숫자 : 51, 06
45년생 요긴하게 사용하게 될 것이니 돈을 넉넉하게 가지고 다녀라. 57년생 행운은 가까운 곳에 있다. 69년생 마음을 굳게 먹어야 흔들리지 않느니라. 81년생 드나들 때 바닥을 먼저 잘 살펴봐야겠다. 행운의 숫자 : 39, 55
46년생 정당한 대가가 아니면 받지 않는 것이 길이다. 58년생 충분히 속자를 한 후에 실행해야 한다. 70년생 편의만을 추구한다면 발전이 없느니라. 82년생 과민하면 노이로제에 걸릴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58, 12
47년생 참성해야 할 관상상에 빠지면 아니 된다. 59년생 상대가 더 바라고 있던 바이다. 71년생 생각을 명료하게 정리하면 의외로 쉬워진다. 83년생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이를 만나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64, 71

"천황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

Table with columns: EBS, EBS플러스1, EBS플러스2. Rows showing program schedules for EBS channels.

Give me some feedback 조언 바랍니다. 倘若無人(방약무인) 결 방, 갈을 약, 없을 무, 사람 인. [출전] <사기(史記) 자객열전(刺客列傳)>

니하오 쑹구위 清君側 qīngjūncè 왕 측근을 제거하다. '왕(君) 주변의 핵심 측근(側) 특히 간신들을 깨끗이 제거하다(清除)'라는 말로 의로운 행위를 나타내는 표현에서 출발했으나, 정권을 갈아엎는 반란의 명분으로 사용되어 중국 고전에 많이 보입니다.

오하오우 니혼고 來年 日本へ行くつもりです 내년에 일본에 갈 작정입니다. A : もうすぐ卒業(そつぎょう)ですね. 何をする予定(よてい)ですか.